

영국 및 일본 동양학의 특징과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내 영문 동양학 장서*

윤영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 소장된 동양학 관련 영문서적들은 영어권에서 생산되었지만 일본 제국대학 시스템 안에서 수입되었다. 그 결과 그 장서구성은 영국의 동양학 발전과정의 특징과, 일본이 동양을 바라보던 시각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부속도서관 내 동양학 관련 장서의 구성내용과 특성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궁극적으로는 이 장서구성이 투영하는 식민지 도서관에 수입된 지식의 수용과 변형과정을 분석하려 한다.

영국은 일본이 서구적 정치체제를 성립하고 제국주의적 팽창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일본이 동양학에 대해 영국과 유사한 국가적 필요성을 공유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영국이 일본에 영향을 끼친 정치, 외교, 사상적 요소들은 일본 동양학만의 고유한 특징까지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일본 동양학 발달의 내재적 요소, 특히 근대 대학체제의 형성과정에서 자국학과 동양학이 분리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일본이 타자를 통한 자기 정체성 강화의 수단으로서 동양학을 발달시키는 특징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일본 동양학 발전의 외적·내적 요인들이 제국대학의 장서구성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경성 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영어 동양학 장서를 분석한 결과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보편적 교양주의로 이는 당시 서구 대학의 교육방향과 일치한다. 그럼에도 이런 보편주의적 관심이 모든 지역에 균등했던 것은 아니다. 일본 지식인들은 중동, 인도 등 자국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거리가 있는 지역은 이들 지역의 고대 문명에 대한 서적을 주로 수집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 몽골, 만주, 인도차이나 등 제국주의적 팽창과 관련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복잡한 일본의 관심사항이 드러났다. 일차적으로 일본은 제국 운영에 필요한 언어, 사회, 문화와 관련된 서적을 구입하였지만, 동시에 서구가 비서구를 타자화하는 과정을 반영하는 책들을 다수 보유하였다. 이는 동아시아를 대상화해서 자신을 다른 동양국가보다 우월한 위치에 두려는 일본 동양학의 또 다른 특징을 반영하는 지점이다.

주제어 동양학,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소아스(SOAS), 영어 역사서, 제국주의

* 이 연구는 2015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I. 서론

본 연구는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내 영문 동양학 장서의 구조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부속도서관에 소장된 동양학 관련 영문서적들은 영어권에서 생산되었지만 일본 제국대학 시스템 안에서 수입되었기 때문에, 그 장서 구성은 영국 동양학 발전과정의 특징과, 일본이 동양을 바라보던 시각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부속도서관 내 동양학 관련 장서의 구성내용과 특성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궁극적으로는 이 장서 구성이 투영하는 식민지 도서관에 수입된 지식의 변형과정을 분석하려 한다.

영국은 오랜 동양학 연구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대학 내에 독립된 학문 분야로서 자리매김한 것은 19세기 후반 제국의 발전으로 인해 식민지에 대한 실용적 지식이 필요해지면서부터였다. 일본의 동양학도 제국운영에 필요한 실용적 학문으로서 발달하였지만, 동시에 타자를 통한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일본이 다른 동양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 형성에 끼친 외적·내적 요인들이 제국대학의 장서 구성에서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과제이다.

그동안의 동양학 연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로, 기존의 연구들은 개별 국가 및 동일 문명권의 범위에서 동양학 발전 과정을 분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왕립 아프리카협회(Royal African Society)’와 필립 하르톡(Philip J. Hartog)은 영제국의 동양학 연구 발전을 런던에 설립된 ‘SOAS(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의 설립과정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는 영제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동양학을 후원하게 되는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양학 연구 발달의 이유를 전적으로 영국 내부의 이슈와 연관시켜 보고 있다(Royal African Society, 1914; Hartog, 1917). 이런 흐름은 전후 동양학 연구로 이어졌다. 랄프 터너(Ralph L. Turner)가 1948년에 발표한 영국의 아프리카학 연구에 관한 논문과 앨버트 호라니(Albert H. Hourani)와 J. D. 라툼(J. D. Latham)이 1974년 발표한 ‘영국 중동학 협회’에 관한 논문 모두 여전히 자국 중심의 동양사 연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Turner, 1948; Hourani and Latham, 1974). 너대니얼 슈미트(Nathaniel Schmidt)는 관심의 범위를

유럽과 미국으로 확장하였으나, 그의 연구범위는 여전히 서구의 몇 개 국가에만 한정되어 있었다(Schmidt, 1923).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동아시아의 동양학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일본 동양학의 권위자인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는 『동양학의 계보(東洋學の系譜)』를 통해 일본 동양학의 성립과정을 집대성하였고, 기시모토 미오(岸本美緒)가 편집한 제국주의 시기 일본 동양학의 자장(磁場)에 관한 논문집도 자국의 동양사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江上波夫, 1992; 岸本美緒 編, 2006). 국내 학자 정선이의 경성제국대학에 관한 저술과 류준필의 19세기 말 일본 대학의 학과 편제에 관한 논문들은 일본에서 동양학이 국학으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동양을 바라보는 수단이 되는 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으나, 일본 동양학이 외부와 단절된 발전경로를 걸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아쉬움이 있다(정선이, 2002; 류준필, 2009). 더글러스 레이놀즈(Douglas R. Reynolds)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의 일본 및 중국에서의 동양학 연구기관 발달과정을 연구하였고, 모즈타바 사드리아(Modjtaba Sadria)도 일본의 중동학 발전과정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학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Reynolds, 1986; Sadria, 1997).

둘째로, 최근에는 동서양의 상호작용 속에서 동양학의 발달과정을 추적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르크 마터라(Marc Matera)는 201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아프리카 이민 증가가 영국의 식민지 관련 학문 발달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고(Matera, 2010), 엘리자베스 호프 창(Elizabeth Hope Chang)도 비슷한 시기에 출판한 책을 통해 18세기부터 영국 사회에 들어온 중국 예술품이 영국 동양학 발전에 끼친 영향을 추적한 바 있다(Chang, 2010). 두 연구 모두 서구 문화에 끼친 동양의 영향에 관한 사례들을 적시하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가 보이지 못한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에 등장하는 예들은 여전히 예외적인 경우로 소개되고 있으며, 이런 책에서도 동아시아의 자체적인 동양학 발전 과정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연구 흐름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영향과 내재적 요인들이 혼합되어 발전한 동아시아 동양학의 특징이 이 지역의 지식체계 속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을 식민지 대학의 도서관 장서 구성을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다. 최근 국내 학자 정근식과 정준영의 연구를 통해 일본 제국대학의 도서관 체제에 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되었으나(정근식, 2010; 정준영, 2015), 이 연구들의 관심은 아직 도서관의 운영방식과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권윤경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내 프랑스어 장서의 구성을 분석한 바 있고, 필자 또한 같은 도서관의 영어 장서구조에 관한 연구물을 출판한 바 있다(권윤경, 2015; 윤영휘, 2016). 이런 연구들은 부속도서관이 식민주의 지적 담론의 수용 과정에서 보인 복잡성과 의외성의 단면을 서양어 장서 구성을 통해 분석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동양학과 같이 서구 오리엔탈리즘을 투영하는 학문이 식민지 지식체계 안에서 변형되는 과정을 장서 구성을 통해 분석하는 것은 후속 과제로 남겨두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서구의 주요 제국주의 국가였던 영국에서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근대적 동양학이 성립되는 과정을 분석한 후, 같은 시기에 일본 동양학이 대내외적 요소에 영향 받아 발전하는 과정을 정리하려 한다. 이후 이러한 요소들이 일본의 제국대학 부속도서관 내 동양학 장서 구성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영국 동양학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II절에서 살펴보고, III절에서는 일본 동양학의 구조를 분석한 후, 이러한 특징이 식민지 도서관의 장서 구성에 반영된 바를 IV절에서 분석할 것이다.

II. 영국의 근대 동양학 발전

영국은 중동지역 연구의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이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미 1579~1639년 사이에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University of St. Andrews)의 세인트 메리 칼리지(St Mary's College)에서 히브리어 및 셈 계열 언어가 교육되었고, 1668년부터는 이 언어들을 교육하는 흥정강좌(Regius Chair)가 개설되었다. 잉글랜드에서도 1632년에 케임브리지 대학(University of Cambridge)에 아라비아어 강좌가 수립된 바 있고, 1724년에는 아머너 경(Lord Almoner) 교수직이 설립되어 이후로도 계속하여 교육이 이어지게 되었다. 1832년부터는 더럼 대학(University of Durham)

이 개교하면서 설립된 신학과에서 히브리어 교육의 일환으로 중동학 연구가 행해졌다(Bidwell et al., 1975: 84-92). 그러나 이런 예들은 대부분 영국 대학들이 지닌 높은 고전문학 연구 전통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성과들이었다.

1632년 케임브리지 대학에 상인 출신인 토머스 애덤스의 후원으로 아라비아어를 교육하는 ‘토머스 애덤스 경 특임교수(the Sir Thomas Adams’s Professor)’직이 창설되었다. 이 대학의 교수들은 이 직책의 임무를 “아직 숨겨져 있는 언어들에 대한 지식에 빛을 비춤으로 훌륭한 문학을 발전”시키는 것과 “교회의 경계를 확장하고 아직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함으로 왕과 국가에 봉사하는 것”으로 소개하였는데(Bidwell et al., 1975: 84), 이는 19세기 이전 영국 대학에서 행해진 동양학 교육의 특징을 요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때까지 영국에서 동양학의 발전은 고전학의 발전에 종속되었고, 대부분 대학의 신학과에서 구약 및 신학 연구에 필요한 언어로서 연구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전파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동양 언어 중에서도 구약연구와 관련된 셈 계열 언어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근대 초 동양학이 다루는 영역도 중동지방에 한정되었다. 또한 이 당시의 동양학은 고전에 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소수의 연구자 사이에서 연구되었으므로 일반 대중에게 중동 및 아시아에 대한 지적 열망을 일으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말로 접어들면서 이런 특징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영국 동양학이 상아탑에서 벗어나 실용지식을 추구하고, 관심 지역 또한 중동에서 인도와 극동으로 확대된 것이다. 1900년경 케임브리지에서는 에드워드 브라운(E. G. Browne)의 지도 아래 중동 지역의 영사관에 통역관으로 파견될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강의가 개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중동 언어가 학문의 대상보다는 실용지식으로서 교육되었다. 브라운은 일상생활에서의 지역 언어를 교육하기 위해 원어민을 아라비아어와 페르시아어 강사로 임명하기도 했다(Bidwell et al., 1975: 84). 영국 외교관들은 곧 효율적인 지역 외교활동을 위해 현지의 언어뿐 아니라 역사, 문화, 종교 등에 대한 일반적 상식이 중요함을 깨달았고, 이런 수요를 반영하여 20세기 초부터 더럼 대학 등에서는 언어교육과 역사, 문화, 문명 교육이 결합되기 시작하였다(Bidwell et al., 1975: 85-86).

이러한 변화는 제국의 팽창으로 인해 행정 효율성 향상이 더욱 필요해지는

과정과 맥을 같이한다. 주지하다시피 영국은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도 동양과 인적 접촉이 많은 나라였다. 이는 일단 무역 구조에서 드러난다. 1914년 영국과 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의 무역액은 연 2억 1천만 파운드 이상에 달했는데, 이는 이들 국가들의 연간 수출입액(약 9억 4천만 파운드)의 22%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했다(Royal African Society, 1914: 423). 또한 ‘동양’에 해당하는 지역과 인적 교류도 활발했다. 매년 영국의 수많은 병사, 선원, 기술자, 법률가, 행정가, 상인들이 동양으로 진출했고, 반대로 영국에 방문하는 아시아인들도 해마다 증가했다. 공부하기 위해 찾아오는 동양 학생 수도 상당하였는데, 1939년의 통계를 보면 그해에만 영국에 온 아시아 및 아프리카 학생들이 123명으로, 이는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Turner, 1948: 284). 이렇게 제국의 상업적 이익이 팽창하고 그에 따른 인적 교류가 확장되면서, 중동보다 더 넓은 지역에 대한 실용적 지식을 교육하는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제국의 팽창과 동양학의 새로운 특징이 성립되는 과정의 상관관계가 ‘SOAS’의 설립과정에서 가장 잘 드러났다. 이미 1887~1890년 사이에 제국의 상업적 이익과 그와 연계된 행정적 이해관계 때문에 런던에 동양학 교육기관을 세우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 런던에 동양학 교육기관으로 임페리얼 인스티튜트(Imperial Institute)가 있었지만, 독립된 공간과 조직을 가진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아직 본교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교육은 유니버시티 칼리지(University College London) 및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 London)에서 나눠서 행해졌다(Brown, 2016: 8). 이런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07년 헨리 캠벨-배너먼(Sir Henry Campbell-Bannerman) 수상이 도널드 마카이(Donald Mackay, 11th Lord Reay)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 설립 위원회[이하 레이 위원회(the Reay Committee)]를 조직하면서부터였다. 1908년 레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학교 설립의 원칙을 세웠는데, 이는 SOAS의 발전 방향뿐 아니라 향후 형성될 영국 근대 동양학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레이 위원회는 중동, 극동 및 아프리카에서 행정과 상업 활동을 하는 인원을 위해 적절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동양학 교육 기관이 제국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표명하였다. 둘째로, 이 위원회는 제국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언어 및 역사, 종교, 사

회관습에 대한 기초 지식을 교육해야 할 것을 천명해, 고전 동양학의 전통에서 벗어나 실용적 지식 전달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동양학의 발전 방향으로 잡았다. 초창기에 이 위원회는 정부의 긴급한 요구사항에 반응하기 위해 실용언어 교육을 위한 공적 자금만 받고, 고전 동양학 교육을 위한 재정 수용은 후속 사업으로 미뤄두었다. 이는 20세기 동양학의 중점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레이 위원회는 새로운 동양학 교육 기관이 기존의 유사기관과 구별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독립된 교정과 이름을 가져야 하며, 또한 동양학의 권위 있는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 방대하고 전문적인 서적 및 정기 간행물 문고를 갖추어야 함을 천명하였다(The Reay Committee, 1909).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인데, 이 지원을 합리화 하는 것도 동양학 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이었다.

이렇게 위원회가 설정한 목표는 향후 SOAS의 발전 과정 속에서 일정부분 실현되었다. 우선 SOAS는 제국이 필요로 하는 보편적 일반지식을 담은 커리큘럼을 가지게 되었다. 이 새로운 동양학 학교는 세계의 언어를 지리적 범위의 측면에서 크게 7개의 지역으로 묶어 교육하였다. 제1집단에는 터키어, 아랍어, 제2집단에는 힌디어, 힌두스탄어, 제3집단에는 구자라트어, 제4집단에는 타밀어, 제5집단에는 버마어, 말레이어, 제6집단에는 중국어, 일본어, 제7집단에는 스왈리어 등 아프리카 언어가 위치하였다(Royal African Society, 1914: 425). 이는 기존의 중동지역 중심의 동양학이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까지 포괄하도록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교과과정은 제국이 지향한 보편적 교양주의를 반영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SOAS의 커리큘럼은 다루는 언어의 지리적 범위뿐 아니라 그 언어를 교육하는 목표에서도 변화를 보였다. 즉, 고전 속의 고대 언어 교육보다 실용적인 일상 속의 언어 교육이 커리큘럼의 중심을 이루게 된 것이다. 영국과 오랜 교류가 있었던 지역인 제1~4집단에 속하는 지역의 언어는 1명의 교수, 2~3명의 조교, 3명의 원어민 교사로 한 강좌가 이뤄져 있었고, 뒤늦게 제국과 이해관계가 생기고 인적 교류도 달한 편이었던, 버마, 말레이, 중국, 일본, 일부 아프리카 지역의 언어 교육을 위해서도 교수와 1명 이상의 원어민 교사를 두었다(Royal African Society, 1914: 425). 이는 20세기 초 영국 동양학 교육의 실용성 중시의 정도

를 반영한다. SOAS는 이 외에도 14개의 언어와 이 언어를 쓰는 지역의 역사, 종교, 관습 등에 대한 교육을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장기계획이었으며 적어도 초기에 교육은 행정 및 교역에 필요한 언어 중심으로 이뤄졌다. 20세기 초 영국 동양학 교육을 담당하던 사람들의 관심사는 분명 제국 경영에 필요한 실용적 지식의 신속한 전달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새로운 동양학 교육은 실제로도 정부의 지원 속에 이뤄졌으며, 이는 영국에서 동양학 발전과 정부 정책의 연관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는 지점이다. 1910년 영국의 인도 국무부는 레이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기초로 SOAS 설립을 구체화하기 위해 에벌린 바링(Evelyn Baring, 1st Earl of Cromer)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조직하였다[이하 크로머 위원회(the Cromer Committee)]. 정부 주도로 세워진 크로머 위원회는 학교 부지 및 필요한 수임원을 찾는 것을 주임무로 하였는데, 이러한 과제는 결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으로 해결 될 수 있었다. 우선 학교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12년 12월에 SOAS 설립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학교 부지를 런던 중심부로 정하고, 정부가 2만~2만 5,000파운드의 금액을 건물 신축 및 보수를 위해 제공한다고 규정하였다(Brown, 2016: 19). 또한 정부는 재정 지원뿐 아니라 법안통과 이후 학교의 런던대학 편입을 승인하는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였다(Royal African Society, 1914: 426). 또한 학교운영비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부서위원회는 인건비, 세금, 도서관 운영 등과 관련된 학교 운영비용이 연간 1만 4,000파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는 당시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후원하는 동양학 교육 기관의 예산(각각 연 1만 파운드와 8,000파운드)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용이었다. 그럼에도 본국 정부는 이를 위해 연 4,000파운드를 추가로 지원하고, 식민지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인도 정부도 연 1,250파운드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Brown, 2016: 22-23). 이러한 정부의 지원 액수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연구에 대한 영국 정부의 관심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SOAS의 설립 과정이 보여주는 것은 새롭게 부각된 제국 운영의 필요성이 동양학연구의 흐름에 변화를 주는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제국의 관료가 되는 인원을 양성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넓은 범위의 지역 언어가 교육될 필요성이 생겼으며, 이와 더불어 제국 운영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 전수가 동양학 연구

의 중요한 동기가 된 것이다. 초기에는 동양에 대한 실용적 지식 중 언어교육에 강조점이 주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뿐 아니라 동양의 역사, 문화, 철학, 관습 등에 대한 이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중일전쟁으로 시작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쟁에 영연방 국가들이 참전하고 영국이 인도, 중국과도 동맹을 맺게 되면서, 동양의 적과 싸우기 위해 또한 새로운 동양 우방국들과의 동맹을 지속하기 위해 아시아 민족들의 언어뿐 아니라, 문화, 경제에 대한 지식이 더욱 필요해졌다(Turner, 1948: 285). 시간이 흐르며 영국으로 대표되는 서양 제국에서 동양학은 제국의 팽창 및 운영의 수단에서 동양이라는 타자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심의 중심축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국 같은 서양 국가들에게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얻는 것은 변하지 않는 동양학 연구의 목표였다.

III. 일본의 영국 동양학 지식의 수용, 그리고 내재적 발전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다른 학문과 더불어 서구 동양학 지식체제도 수입하게 되었다. 일본은 처음엔 서구 문물을 최대한 빨리 수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것을 내적으로 소화하여 자국의 특색을 갖춘 새로운 학문체계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서구 지식의 수용 및 변형 과정은 동양학의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 일본에서 동양학은 수입된 서양 지식으로서 제국운영에 필요한 실용적 지식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 서양이 동양을 바라보는 시각을 모방하여 동양에 속한 일본이 스스로를 나머지 동양과 구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에서 동양학이 성립되고 그 자체의 특색을 갖추게 되는 과정에서 영국은 크게 정치, 외교, 사상적 측면에서 중요한 배경을 제공하였다.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일본이 서구식 정치 체제를 갖추는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 영국은 도쿠가와 막부 후기와 메이지 유신 초기에 이르는 근대화의 결정적 국면에서 각 시기별로 일본을 근대화로 이끌 세력을 지지하였다. 당시 영국의 대일본 외교의 핵심 이해관계는 무역에 놓여 있었고 일본에 온 영국 외교

관들은 대일 무역의 확대를 위해 낮은 관세, 개항, 일본의 내지에 대한 접근권한 등을 얻으려 노력하였다. 일본에 진출한 영국인들은 1858년 이후 막부와 맺은 통상 조약에 의해 이런 권한들을 순차적으로 얻게 되었지만, 곧 일본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과 무질서로 인해 이 약속이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영국의 중요 목표 중 하나는 일본의 내전 상황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1865년 주일 공사 해리 파크스(Harry Parks)가 나가사키에 도착했을 때, 막부는 외국과 맺은 조약에 대해 일왕의 인준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슈번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 있었다(Daniels, 1968: 294). 일본의 정치적 위기상황을 간파한 파크스는 이후 몇 달 동안의 내전 위기 속에서 영국의 인적, 물적 자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두었다. 그러나 그는 곧 기존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현 상황을 타계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일본이 직면한 위기는 오랜 시간 기존 사회질서를 이뤄 왔던 정치체제가 보이는 한계였다. 일례로 파크스는 오랫동안 일본에게 영국 상인들을 통해 쌀을 수입하라고 요구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Daniels, 1968: 297), 근본적인 이유는 당시의 막부 체제가 외교적인 약속을 해도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영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중립을 표명했음에도, 파크스는 젊은 군주를 중심으로 한 새 정부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행보를 시작하였다. 1868년 1월 도쿠가와 막부가 사실상 패퇴하고 메이지 정부군이 우세하게 된 상황에서 파크스는 교섭의 파트너를 교체하였다. 그는 서양 외교관들과 새 정부 사이에서 중재를 시작하였고, 1868년 2월 새 정부로부터 미래의 모든 소요 사태로부터 외국인을 보호할 것이라는 확약을 받아내었다(Daniels, 1968: 310). 그리고 1868년 5월에 파크스는 오사카를 방문해 그의 신임장을 젊은 군주에게 제출하였다. 이는 영국이 일본의 새로운 체제를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영국이 중립 선언을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은 1869년 2월이었지만, 그전부터 일본 내 외교관 중 가장 영향력이 컸던 영국 공사의 정치적 행보는 존왕파(尊王派)에 대한 국제적 지지로 해석될 여지를 주었고, 결과적으로 일본이 서구 열강 중에서도 영국의 영향 하에 근대적 정치체제를 성립하도록 영향을 끼쳤다. 이는 아래에서 설명할 외교적

배경과 더불어 동양학에 대하여 일본이 영국과 유사한 국가적 필요성을 공유하게 된 이유를 감지할 수 있는 지점이다.

또한 외교적 측면에서 영국은 1902년 체결된 영일동맹을 통해 근대적 정치체제를 갖춘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의 하나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였다. 제1차 동맹조약의 1조는 ‘영국은 중국에, 일본은 한국에 각각 특수한 이익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Japanese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1902), 이는 중국과 한국을 동맹의 이해관계 지역으로 명시해 러시아의 팽창 방지라는 목표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의 해석에서 양국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영국은 이 조항을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경고로 해석한 반면, 일본은 이 조항을 한국에 대한 배타적인 이익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하였다(Davis, 2008/2009: 154).

제1차 영일동맹은 실제로도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의 시작점으로 여겨지는 러일전쟁의 승리에 기여하였다. 계약 당사국이 다른 나라와 교전할 때에는 동맹국은 중립을 지킨다는 조약 2항에 따라 영국은 공식적으로는 ‘엄정 중립’을 지켰지만, 러시아 함대의 수에즈 통과를 막고, 이탈리아가 아르헨티나의 주문으로 건조 중이던 전함을 일본으로 인도하도록 거중조정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일본의 승리에 기여하였다(로스푸노프 외 전사연구소, 2004: 83-84). 1905년 8월에 갱신된 제2차 조약에서 영국은 일본의 한반도에서의 이익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이런 외교적 지지 속에 일본은 같은 해 11월에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동양의 일부였지만, 다른 동양 국가들과 달리 서구적 정치체제를 수립하고 더 나아가 서구처럼 제국주의적 팽창을 시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 영국의 외교적 역할이 중요하였다. 이는 일본이 영국과 같은 서양 국가들처럼 제국운영을 위한 지식으로서 동양학이 필요했던 이유를 일정부분 설명한다.

19세기 후반부터 증가한 영국과 일본 지식인들 사이의 사상적 교류는 영국이 일본 동양학의 발전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통로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인들이 서양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이들은 초기에는 직접 서양인들과 교류하며 그곳의 문물을 수입해 왔다. 그러나 일본과 서양의 지식인들 사이에 인적 교류가 쌓일수록 서양 문물을 소개하는 서적의 도입이 더욱 촉진되었다. 예를 들어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1862년 유럽 여행을 떠나 영국

에서 다수의 지식인들을 접촉하고 그들을 통해 영국의 교육 및 정부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바 있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와서도 이들과 지속적으로 서신을 교환하였으며, 이들이 소개해 준 요코하마의 서양인들과 교류하고 이들이 준 문서를 수집하였다. 또한 이들을 통해 다량의 서양 서적을 수입하게 되었다(Yukichi, 1933~1934: 467; Hane, 1969: 261 재인용). 메이지시대 지식인들은 초기에는 각 분야의 유명한 학자의 저술을 무작위로 수입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그중에서 좀 더 중요한 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관련 서적을 체계적으로 수입하는 발전과정을 겪었다.

이미 1880년대부터 서양 서적을 입수한 개인들 사이에 상당수의 책들이 공유되기 시작하였고, 19세기 후반에 설립된 초기 대학들에 도서관이 세워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서양에서 수입된 책들을 읽게 되어, 각 학문별로 지식의 지형이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은 영국 지식인들의 사상과 학문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일례로 메이지 시대의 대표적 지식인 야노 후미오(矢野文雄)와 유명 사회경제학자 가나이 노부루(金井昇)는 대학생이었을 때 영어 권장도서 목록을 만든 바 있다. 이 권장도서 목록에 있는 책들은 영어권에서 출판된 것들로 제한되었는데, 이는 당시 많은 일본 지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인문학이 영미권에서 가장 발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Hane, 1969: 271).

당시 일본 대학생들 사이에 존재한 권장도서 목록을 보면 당시 학문 범주 전반에 걸쳐 영국 사상가들의 책이 수입되어 읽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두 목록에 나오는 필독서들은 역사, 윤리, 정치 이론, 정부, 법학, 경제, 심리학, 문명사, 사회학 등 일반적으로 도서관 장서를 필수적으로 구성하는 학문들에 포진되어 있다(Yoshino, 1927~1930: 466; Eijira, 1941: 23, 33-35; Hane, 1969: 271-272 재인용). 당시 서구를 따라잡기에 급급했던 일본 지식인들은 국가를 발전시키고 근대화하기 위해 보편적 교양주의를 표방하고 있었는데, 이 목록들은 동양학 관련 서적들도 이런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야노의 리스트 중 동양학과 관련된 역사, 지리 분야의 책들을 보면 엘리엇(Elliott)이 쓴 세계지리를 다루는 책, 혹은 새뮤얼 굿리치(Samuel G. Goodrich)나 챔버스(Chambers)가 쓴 『일반역사(Universal History)』같이 보편사의 테두리 안에서 동양 지역을 다루는 서적들

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Yoshino, 1927~1930: 466; Hane, 1969: 271 재인용). 이런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 위주의 학문 수용은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지는 일본 대학의 특징이 되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듯, 제국 대학의 일차적 목표는 제국 경영에 필요한 일반적 상식을 가진 인재 양성이었다.

이상의 영국이 일본에 영향을 끼친 정치, 외교, 사상적 요소들은 일본이 서구 국가와 비슷한 필요성을 동양학에 대해 가지게 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런 요소들이 일본이 서양 동양학과 공유하는 일반적 특성 외에, 일본 동양학 고유의 특색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메이지 유신 초기의 일본 동양학의 내적 발전과정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근대 교육체제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국학과 동양학이 분리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래 막부시대에는 쇼헤이 학교(昌平學校), 가이세이 학교(開成學校), 의학교(醫學校) 등이 교육기관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면서 쇼헤이 학교를 대학본교(大學本校)로, 가이세이 학교를 대학남교(大學南校)로, 의학교를 대학동교(大學東校)로 하여 통합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었다(정준영, 2009: 34-35). 이는 근대 대학교육의 시작이자 서구 학제로의 편제 변경과정의 시작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본래 쇼헤이 학교가 유학 교육기관의 역할을 했고, 가이세이 학교와 의학교가 각각 서양학문과 의학을 교육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초기 대학교의 학과 구성도 이에 영향 받아 크게 국한학(國漢學), 양학, 의학으로 삼분되었다. 새 교육 제도에서 양학의 비중이 커졌지만, 서구의 동양학에 해당하는 학문 영역은 아직 국학과 한학(漢學)에 혼재되어 있었다.

1871년 이런 교육 방침에 대한 국학파의 반발로 인해 대학이 폐지되었지만, 그럼에도 서구 중심의 학제 편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었다. 1877년 도쿄대학이 설립되었을 때 서양대학과 비슷하게 법학부, 이학부, 문학부, 의학부가 설치되었고, 문학부는 다시 2과로 구분되었다. 제1과는 사학, 철학, 정치학 같은 보편성을 띤 학문인 반면, 제2과는 화한문학과(和漢文學科)같이 일본, 중국 같은 특정 지역을 다루는 학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류준필, 2009: 208-209). 당시 화한문학과는 동양의 두 지역을 같이 다루고 있었는데, 이는 일본적 학문의 전통에서 아직 국학과 한학이 서로 명확히 분리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는 아

직까지 동양과 스스로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던 일본의 인식의 수준을 보여준다.

그러나 점차 동양을 타자화하는 서구적 시각이 담긴 서적들이 수입되고 강의 되면서 일본에서도 자국과 분리된 타자로서의 ‘동양’을 바라보는 견해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1881년 철학과에서는 ‘인도 및 지나 철학(印度及支那哲學)’ 강좌가 설치되면서 철학 교과 내에 동양철학 과정이 생겼고, 1886년에는 도쿄대학 고전 강습과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동양학회’를 설립하였다(류준필, 2009: 215; 윤영도, 2010: 162). 새로운 ‘동양’ 관련 전공이 생기는 과정에서 일본 학자들이 지칭한 동양의 개념에 일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였다. ‘동양철학’ 및 ‘동양학’의 관념은 자국학과 무관하게 유럽에서 발달한 동양학 관련 학문을 일본이 수용하여 생겨났으며, 이렇게 일본과 분리된 동양의 존재 수용은 역설적으로 일본학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이런 현상은 1886년 제국 운영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국대학이 생긴 이래 더욱 분명해졌다.¹ 도쿄제국대학에는 처음에 사학과, 화문과, 한문과, 박언학(博言學)과가 설립되었다. 사학과에서는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가 서구 역사방법론을 도입해 중국 이외 동양 지역에 대한 연구를 발달시켰고, 이치무라 산지로(市村瓊次)는 중국사 중심의 동양사학을 형성하였다(윤영도, 2010: 163). 이런 움직임과 더불어 1889년 역사분야에 독립된 국사학과가 설립됨으로써, 자국학과 분리된 동양사의 영역이 더욱 명확해졌다. 문학분야에서는 화문학이 국문학과로, 한문학과가 한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양자의 경계가 점차 명확히 분리되었다. 또한 오늘날의 언어학에 해당하는 박언학과에서는 일본어를 서구식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고양함과 동시에 중국어, 산스크리트어 같은 동양 언어를 일본어의 비교 대상으로서 제시하였다(東京大学創立百年の記念事業, 1974-1987: 795; 류준필, 2009: 215에서 재인용). 이 과정에서 일본어는 서구 언어뿐 아니라 동양 언어 연구로부터 분리된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렇게 19세기

¹ 1886년에 1877년 생긴 도쿄대학이 제국대학으로 개칭되었는데, 당시로서는 유일한 제국대학이므로 그냥 ‘제국대학’으로 불렸다. 그러나 1897년, 교토제국대학의 설립되면서 도쿄제국대학으로 개칭되었다.

말 제국대학의 발전과 학과 편제의 변천과정에는 일본과 동양을 분리한 동양학의 등장과정이 드러나고 있었다.

영국으로 대표되는 서양에서 동양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종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확연히 다른 특색을 지닌 객체였기 때문에, 그들을 타자화하는 학문 분과가 발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일본은 서양적 의미의 동양학에서 말하는 객체에 속했기 때문에, 서양의 동양학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동양의 객체가 스스로를 객관화된 타자로 인식하게 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역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에서는 동양학을 수용하는 동안 자국이 동양의 일원으로서 지닐 수밖에 없는 속성을 배제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그런 점에서 앞서 설명한 국사학과와 국문학과와 설립과정은 일면 일본의 자국학이 근대적 제도화에 성공하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일본이 스스로를 동양과 구분하는 새로운 동양학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기도 했다.

『일본 동양학의 구조』를 쓴 스테판 다나카(Stefan Tanaka)는 ‘동양사’ 혹은 ‘동양학’이 근대 일본을 “아시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로서 “유럽과 대등한 나라”로 보이게 하는 수단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Tanaka, 1993: 12-13). 그것은 일본이 서양과 동양이라는 비교대상 사이에서 스스로의 진보를 측정하는 설명논리로 동양학을 이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일본에서 동양학은 스스로를 영국 같은 제국주의 국가로 보이게 하고 제국 운영에 필요한 실용적 학문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동양의 타자보다 우월함을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동양에서 분리시키는 방식이 되기도 했다.

IV. 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장서 구성에 나타난 일본 동양학의 특징

III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동양학은 수용된 지식으로서 서구 제국주의 국가가 동양학에 대해 가지고 있던 필요성을 공유했지만, 수용주체가 동양의 일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신을 제외한 동양을 타자화하는 방식이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이러한 특성을 일본의 지성계를 대표하는 대학이라는 제도의 변천

과정 속에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그것이 실제 일본인들이 서구 지식을 재구성한 지식체계 안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분석하려 한다. 이 장에서는 일본이 식민지에 건설한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영문 장서에 주목할 것이다. 필자가 이 장서를 분석대상으로 한 것은 자료 접근의 편이성 때문만이 아니라, 몇 가지 고유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제국대학 도서관 자체가 서구에서 수입한 근대지식을 일본식으로 재구성한 공간이다. 근대화 초기 일본인들은 서구 국가들이 보유한 도서관 장서를 보고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서구적 지식의 체계적인 구비와 광범위한 파급이 시급했던 이들에게 도서관 장서의 체계적 분류와 배치는 서구 지식 자체의 배열처럼 여겨졌다. 서유럽과 달리 국가 주도의 근대화가 진행되었던 일본에서는 서양 학문의 수입 및 보급의 대표 기관이었던 제국대학의 부속도서관이 지식의 재배열 작업을 수행할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여겨졌다.

1877년 설립된 도쿄대학은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는 부속도서관뿐 아니라 단과대학들이 각각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다. 각 도서관들은 경쟁적으로 서양 서적을 수입했지만, 실제로 어떤 종류의 책을 비치하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과정에는 각 학부 교수들의 역할이 중요했다(정준영, 2015: 129). 1890년대 이후 제국대학은 독일대학의 모델을 따라 1명의 정교수, 1명의 조교수, 2명 이상의 조수, 대학원생 몇 명으로 구성된 강좌제를 운영하고 있었다.² 강좌 교수들은 강좌가 행해지는 교실에 연구에 필요한 서적을 비치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이는 관련 서적을 가까이에 두고 연구에 참조하기 쉬운 장점이 있으나, 도서 구입의 중복 및 분실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단점도 초래하였다(정준영, 2015: 132-133).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일본 대학의 지식인들이 읽고 교육하는 내용들이 도서관 장서목록에 반영될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동양학 관련 도서를 분석하려는 두 번째 이유는 부속도서관이 위의 제국대학 도서관들의 특징들을 거의 그대로 공유하

² 그러나 1강좌 1교수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독일과 달리, 실제로 일본의 제국대학은 영역에 따라 복수 강좌 설치가 가능하였다(윤영휘, 2016: 425).

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본국과 식민지의 제국대학들이 도쿄제대의 모형을 그대로 따라해 일정 수준의 동질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은 식민지에 국가가 인증한 제국대학을 설립한 이상 그 고유 관행을 온전히 관철시켜 식민지 사회에서도 최고 학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식민지에 위치한 제국대학에는 일본 제국대학의 도서관 구성방식, 도서관 구매 방식, 장서 구성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정준영은 이를 식민지와 식민본국 사이에 존재한 ‘제도적 동형성(institutional isomorphism)’으로 설명하면서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이 일본 본토의 지식 구성방식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정준영, 2015: 140-141).

마지막으로,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은 식민지에 위치한 제국대학의 도서관이라는 점에서 일본이 식민지에 이식하려고 한 지식과 실제 이식된 지식체계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일본의 제국대학이 식민지 엘리트들에게 민족주의 대신 보편적 지식을 가르쳐 ‘제국의 엘리트’라는 정체성을 갖도록 유도하는 기관으로 활용되었음을 강조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도서관의 서양어 자료들이 보편적 교양주의를 전파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강조하였다(정근식, 2010: 80; 권윤경, 2015: 212). 그러나 필자는 이전의 연구에서 보편적 지식의 외관 아래 저명 학자의 저서들이 면밀한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집된 결과 식민지 제국대학의 도서관이 이질적이고 독특한 장서 구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강조한 바 있다(윤영휘, 2016: 426, 439). 부속도서관은 일본이 강조한 근대화 담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나, 동시에 그 담론들이 장서 속에 불균등하게 산재되어 있었음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경성제대 도서관 내 영문장서 구성은 3장에서 보인 일본 동양학의 복합적인 특징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또한 얼마나 변이되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지점이다.

경성제대 부속도서관 내 서양어 장서의 구성을 보면 우선 독일어 서적이 5만 5,489권으로 약 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은 영어 서적이 4만 3,526권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약 36.8%)을 차지하고 있다.³ 이 중 역사서(H제

³ 필자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실에 보관된 경성제대 부속도서관 서양어 장서 목록을 전

열)로 분류될 수 있는 영어 장서의 총수는 2,088권이지만, 복본이 존재하거나 전집류나 사전류같이 동일 제목을 가진 하나의 책이 분책된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중복의 경우를 제외하면 영어 역사 장서는 1,364종(種)으로 구성되어 있다(윤영휘, 2016: 431). 이 중 일본 동양학의 발전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리적 범주에 속하는 책의 대략적인 비중을 알기 위해서는 아래의 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문 역사 장서를 지리적 범주에 따라 분류해 보면 유럽 관련 서적의 비중이 약 32.5%로 다수를 차지하고, 그중에서도 영어권 지역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윤영휘, 2016: 436). 그러나 영어 장서 내에 동양학과 관련된 아시아 및 중동을 다루는 서적도 약 359종으로 26.2%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영문 장서가 다루는 동양학과 관련된 지역을 보면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서구열강들이 자국의 동양학 교육 기관에 요구했던 것처럼 제국대학에 입학한 식민지 학생들이 “민족주의 대신 보편적 교양주의를 통해 ‘제국적 엘리트’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도록 유도”하였는데, 백과사전식 장서 구성은 이러한 교육방침을 일정 수준 반영하고 있다(정근식, 2010: 80).

표 1 영어 역사서의 지리적 분류⁴

유럽(445)	영국(129), 유럽 일반(71), 러시아(41), 프랑스(37), 그리스(36), 독일(32), 이탈리아(32), 아일랜드(17), 오스트리아-헝가리(9), 네덜란드(7), 스페인(7), 스칸디나비아(6), 발칸 반도(5), 벨기에(4), 폴란드(3), 체코(3), 지중해(3), 스위스(2), 포르투갈(1)
아시아 및 중동(359)	중국(102), 인도(97), 중동(52), 일본(41), 아시아 일반(23), 터키(9), 중앙아시아(8), 인도차이나(7), 몽골(6), 만주(5), 한국(4), 필리핀(3), 자바(1), 티베트(1)
아메리카(102)	미국(42), 라틴 아메리카(27), 아메리카 일반(24), 캐나다(9)
아프리카(55)	이집트(33), 남아프리카(6), 서아프리카(4), 북아프리카(3), 기타(9)
오세아니아(25)	오스트레일리아(10), 뉴질랜드(3), 하와이(3), 기타 오세아니아 지역(9)

수 조사하여, 그 데이터를 종합·분석한 바 있다(윤영휘, 2016: 431-439). 이전의 연구와 연속선상에 있는 본 논문은 주제에 관련된 범위에서 위 논문의 연구 자료를 재사용했음을 밝힌다.

⁴ 이 표는 윤영휘(2016: 436)에 나온 것을 일부 수정·재사용하였다.

그럼에도 일본이 서양서적을 수입하면서 보인 보편주의적 관심이 모든 지역에 동일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일본의 지식 수입자들은 지역에 따라 특별히 관심이 가졌던 영역이 있었다. 예를 들어 유럽에 관한 책을 수집할 때, 일본 지식인들은 주로 이들이 이룩한 정치 제도와 제국 등에 관심을 보였다.⁵ 마찬가지로 아시아에 관련된 책을 수집할 때 일본 지식인들은 중동, 인도 등 자국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거리가 있는 지역은 이곳의 고대 문명이었던 아시리아, 페니키아, 우르, 바빌론 혹은 아소카, 모헨조다로 문명 등에 대한 서적을 주로 수집하였다.⁶ 이런 장서의 구성은 일차적으로는 이 서적들의 원생산국인 영어권 국가들이 중동 지역에 대해 가진 일차적 필요를 드러낸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던 서구의 학문적 관심사항을 수용함으로써 일본을 서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려 했던 일본 동양학의 특징을 엿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 몽골, 만주, 인도차이나 등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관련 있는 지역에 대한 일본 지식인들의 관심 분야는 달랐다. 특히 만주는 일본의 팽창과 러시아 남하 정책이 충돌하는 지점으로서 관심을 받았고, 인도차이나 지역 또한 잠재적 침략지로서 상당한 관심이 집중된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 대한 일본대학 구성원들의 관심은 일차적으로는 당면한 제국의 팽창에 필요한 언어, 사회, 문화와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어 『몽골(Mongolia)』(1920), 『만주(Manchuria)』(1920), 『티베트(Tibet)』(1920)같이 전략적 이해관계 지역의 언어, 지리, 인구, 문화, 산업 등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전

⁵ 예를 들어 영국에 관한 서적들 중 상당수는 제국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다음의 예 참조. East India Company(1896), *Letters received by the East India Company from Its Servants in the East*. [s.n.]; Sir Shafaat Ahmad Khan(1926), *Sources for the History of British India*. [s.n.]; P. E. Roberts(1938), *History of British India under the Company and the Crown*. [s.n.]. 당시 신흥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관련해서는 정치제도 및 국가 건설과 관련된 책들이 다수 구비되어 있다. 다음의 예 참조. Homer C. Hockett(1925),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of the United State*. [s.n.]; Nicholas Murra Butler(1939), *Building the American nation*. [s.n.].

⁶ 중동 및 인도에 관련된 대표적인 책은 다음과 같다. S. G. W. Benjamin(1920), *Persia*. London: T. Fisher Unwin; George Rawlinson(1920), *Phoenicia*. [s.n.]; Zénaïde A. Ragozin(1920), *Media, Babylon, and Persia*. [s.n.]; John Hubert Marshall(1927), *The Bagh Caves in the Gwalior State*. London: India Society; Deradatta Ramakrishna Bhandarkar(1920), *The Inscriptions of Asoka*. [s.n.].

달하는 책들이 영문 동양학 장서 안에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영문 동양학 장서 구성은 서구와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진보를 측정하면서, 동아시아를 대상화해서 자신을 다른 동양국가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으려는 일본 동양학의 또 다른 특징을 반영한다. 우선 일본 지식인들은 서구의 시각을 통해 자국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예를 들어 조지 베일리 샌섬(George Bailey Sansom)의 『일본』은 개항기 일본에 온 서구인들이 남긴 이미지를 종합하여 소개하는데, 여기서는 일본의 발전이 이색적이지만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모스맨(J. Mossman)의 『새로운 일본,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와 모리스(J. Morris)의 『일본은 무엇을 할 것인가』 등의 책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일본을 떠오르는 열강의 하나로서 묘사한 예들이다(Sansom, 1932; Mossman, 1873; Morris, 1898). 이런 유형의 책들은 근대화를 먼저 이뤄낸 서구인들의 시선으로 자신이 이룩한 발전을 인정받고 싶은 일본인들의 욕구를 드러내 주고 있었다.

또한 부속도서관 내 동양학 관련 장서의 구성은 서양 제국들이 동양을 타자화하는 과정을 일본이 자국을 제외한 다른 동양에 투영하는 일종의 변형된 오리엔탈리즘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옥스퍼드 대학의 중국학 교수 윌리엄 수트힐(Sir William E. Soothill)이 저술한 『중국과 서양』은 작가가 선교사로 중국에 거주했던 시절의 경험에 기초해 서구적 시각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표상하고 있다. 허드슨(G. F. Hudson)의 『유럽과 중국』도 유럽인의 입장에서 동양을 대표하는 중국을 바라보고 타자화하는 점에서 수트힐과 비슷한 시각을 담고 있다. 또한 영어 동양학 장서 안에는 예일대학의 케네스 스콧 라토레트(Kenneth Scott Latourette) 교수가 쓴 『중국, 그 역사와 문화』 같은 중국에 대한 입문서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사실 이 책은 라토레트가 한자를 읽지 못했기 때문에 서구학자들의 자료에만 기초해 저술되었고, 그 결과 서구적 시각을 질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책에 일본 지식인들이 보인 관심은 일본이 다른 동양을 바라볼 때 가졌던 시각의 특색을 보여준다(Soothill, 1925; Hudson, 1931; Latourette, 1934).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주변국을 타자화하는 내용을 담은 책들도 이 동양학 관련 장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J. O. P. 블랜드(J. O. P. Bland)의 『중국, 일본, 한국』은 일본의 발전상을 다른 두 이웃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강조하여, 일본이 다른 동양지역에 대해 가지는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1937년 일본 전국대학 교수협회가 발행한 『일본-중국 갈등과 일본의 입장』은 일본이 중국과 그 시민들을 대해 가지는 태도가 서구제국이 그 식민인들을 다루는 방식과 닮았음을 보여준다. 구한말 조선정부의 세무보좌관으로 일했던 체스니 던컨(Chesney Duncan)이 쓴 『한국과 강대국들』 또한 비슷한 예일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조선정부의 무능력과 사회의 부패상을 강조하며 자연스럽게 이웃 국가인 일본의 정부와 사회의 효율성과 선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Bland, 1863; Zenkoku Daigaku Kyōju Renmei, 1937; Duncan, 1889). 이렇게 부속도서관의 영문 동양학 관련 서적의 상당수는 일본이 서구가 동양을 바라보는 시각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국을 다른 동양 국가들로부터 구분하고, 스스로를 재규정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었다.

V. 결론

지금까지 동양학과 관련된 연구 성과들에서는 서양에서 주입된 요소와 내부적 발달 요소가 혼합되어 발달한 동아시아 동양학의 특징이 충분히 강조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특징이 당시 지식체계 속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고찰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런 점에서 일본 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동양학 장서 구성분석은 지금까지 충분히 조명 받지 못한 영역을 비추려는 시도이다.

영국은 일본이 서구적 정치체제를 성립하는 과정과 제국주의 열강의 하나로 성장하는 시작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일본이 동양학에 대해 영국의 것과 유사한 국가적 필요성을 공유하는 배경이 되었다. 무엇보다 19세기 후반부터 증가한 영국과 일본 지식인들 사이의 사상적 교류는 영국이 일본 동양학의 발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통로였다. 그러나 영국이 일본에 영향을 끼친 외부 요소만으로 일본 동양학만의 고유한 특징까지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일본 동양학 발달의 내재적 요소, 특히 근대 대학체제의 형성 과정에서 국학과 동양학이 분리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 과정은 일본이 타자를 통한 자기 정체성 강화의 수단으로서 동양학을 발달시키는 특징

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 동양학 발전의 대내외적 특징들은 일차적으로는 대학이라는 지식 교육 제도의 변천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제도의 변천이 지식내용 안에 이러한 특징이 반영되었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일본 지식인들이 구축한 지식체계 안에서도 동양학의 대내외적 특징들이 드러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부속도서관의 영어 동양학 장서의 구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보편적 교양주의였는데, 이는 당시 서구 열강의 교육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장서의 구성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면 보편주의적 관심이 모든 지역에 균등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일본 지식인들은 자국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거리가 있는 지역의 경우 이들 지역의 고대 문명에 대한 서적을 주로 수집하였다. 여기서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던 서구의 학문적 관심사항을 수용하여 일본을 서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려 했던 일본 동양학의 특징이 엿보인다.

그러나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 몽골, 만주, 인도차이나 등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관련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본의 좀 더 복잡한 관심사가 드러났다. 일차적으로 부속도서관은 당면한 제국 운영에 필요한 언어, 사회, 문화와 관련된 서적을 구입하였지만, 동시에 서구가 비서구를 바라보고 타자화하는 과정을 담은 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동아시아를 대상화해서 자신을 다른 동양국가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으려 하는 일본 동양학의 또 다른 특징을 반영하는 지점이다.

그동안의 식민지 지적 담론에 관한 연구들은 식민지 지식인들이 서구가 비서구를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수용하고, 제국 운영의 측면에서 그것을 이용하려 했던 수동적 면모가 강조되었다. 이는 그동안의 동양학 관련 연구들이 대체로 공유했던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속도서관 내 영어 동양학 장서들은 20세기 초 일본이 서양이 동양을 바라보는 방식을 자국과 다른 동양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또한 반영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 권윤경. 2015. “식민지도서관과 이식된 근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프랑스어 장서 및 역사서 분석.” 『사회와 역사』 105집, 209-241.
- 로스투노프 외 전사연구소. 김중현 역. 2004. 『러일전쟁사』.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류준필. 2009. “19C 말 일본 대학의 학과 편제와 國學·漢學·東洋學의 위상.” 『코기토』 66집, 199-233.
- 윤영도. 2010. “20세기 초 아시아 관련 학제(學制) 및 학지(學知) 형성 고찰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과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을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46집, 153-175.
- 윤영휘. 2016.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내 영문 역사장서의 구성분석 연구.” 『역사와 실학』 59집, 421-458.
- 정근식. 2010.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형성과 운영: 제도이식론과 권력의 재현 사이에서.” 『사회와 역사』 87집, 39-85.
- 정선이. 2002. 『경성제국대학 연구』. 서울: 문음사.
- 정준영. 2009.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헤게모니』.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준영. 2015. “제국일본의 도서관체제와 경성제대 도서관.” 『사회와 역사』 105집, 111-145.
- 岸本美緒 編. 2006. 『帝國日本の學知·東洋學の磁場』. 東京: 岩波書店.
- 東京大学創立百年の記念事業. 1974~1987. 『東京大學百年史 通史 1』. 10 vols. 東京: 東京大學.
- 江上波夫. 1992. 『東洋學の系譜』. 東京: 大修館書店.
- Bidwell, Robin L., Howard Bowen-Jones, B. S. J. Isserlin, and John Burton. 1975. “Middle Eastern Studies in British Universities.” *Bulletin of British Society for Middle Eastern Studies* 1, 84-92.
- Bland, J. O. P. 1863. *China, Japan and Korea*. [s.n.].
- Brown, Ian. 2016.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Imperial Training and the Expansion of Lear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ng, Elizabeth Hope. 2010. *Britain's Chinese Eye, Literature, Empire, and Aesthetics in Nineteenth-Century Britai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Daniels, Gordon. 1968. “The British Role in the Meiji Restoration: A Re-Interpretive Note.” *Modern Asian Studies* 2, 291-313.

- Davis, Christina L. 2008/2009. "Linkage Diplomacy: Economic and Security Bargaining in the Anglo-Japanese Alliance, 1902-1923." *International Security* 33, 143-179.
- Duncan, Chesney. 1889. *Corea and the Powers*. [s.n.]
- Eijira, Kawai. 1941. *Meiji sbisōshi no ichi danmen: Kanai Noburu o chūshin to shite*. Tokyo: Nihon Hyōronsha.
- Hane, Mikiso. 1969. "the Source of English Liberal Concepts in Early Meiji Japan." *Monumenta Nipponica* 24(3), 259-272.
- Hartog, P. J. 1917. "The Origins of the School of Oriental Studies."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1, 5-22.
- Hourani, A. H. and J. D. Latham. 1974. "The British Society for Middle Eastern Studies." *Bulletin of British Society for Middle Eastern Studies* 1, 3-4.
- Hudson, G. F. 1931. *Europe & China*. [s.n.].
- Japanese Center for Asian Historical Records. 1902. "The Anglo-Japanese Alliance, January 30, 1902." <https://www.jacar.go.jp/nichiro/uk-japan.htm> (검색일: 2017. 12. 04)
- Latourette, Kenneth Scott. 1934. *The Chinese, Their History and Culture*. London: Macmillan.
- Matera, Marc. 2010. "Colonial Subjects: Black Intellectuals and the Development of Colonial Studies in Britain." *Journal of British Studies* 49, 388-418.
- Morris, J. 1898. *What Will Japan Do?* [s.n.].
- Mossman, Samuel. 1873. *New Japan, the Land of the Rising Sun*. [s.n.].
- Reynolds, Douglas R. 1986. "Chinese Area Studies in Prewar China: Japan's Tōa Dōbun Shoin in Shanghai, 1900-1945."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45, 945-970.
- Royal African Society. 1914. "London School of Oriental Studies." *Journal of the Royal African Society* 13, July, 423-429.
- Sadria, Modjtaba. 1997. "Middle East Studies in Japan: From One East to the Other, Middle East Report." *Middle East Studies Networks: The Politics of a Field* 205, 25-26.
- Sansom, George Bailey. 1932. *Japan*. [s.n.].
- Schmidt, Nathaniel. 1923. "Early Oriental Studies in Europe and the Work of the

- American Oriental Society, 1842-1922.”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43, 1-14.
- Soothill, William Edward. 1925. *China and the We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anaka, Stefan. 1993. *Japan's Orient: Rendering Pasts into Histor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The Reay Committee. 1909. *Report of the Committee appointed by the Lords Commissioners of His Majesty's Treasury to consider the Organisation of Oriental Studies in London*. London: HMSO.
- Turner, R. L. 1948.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in Great Britain.”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19, 284-287.
- Yoshino, Sakuzō. 1927~1930. *Meiji bunka zenshu XVI* (24 vols). Tokyo: Nihon Hyoron Shinsha.
- Yukichi, Fukuzawa. 1933~1934. *Fukuzawa senshū, zoku VII* (7 vols). Tokyo: Iwanami.
- Zenkoku Daigaku Kyōju Renmei. 1937. *The Japan China Conflict and the Attitude of Japan*. [s.n.]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British and Japanese Oriental Studies Reflected in the History Books in English of the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Young Hwi Yoo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book collection of oriental studies in English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consisted of books published in the English-speaking countries but imported through the imperial university system of Japan. Thus, the characteristics evident i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oriental studies in Britain and Japan and the accompanying views on the other “orients” were overlapped in the collection. This research primarily aims to demonstrate the contents and features of the oriental collection of the library and also analyze the importation of Western knowledge into colonial university libraries and its transformation.

Britain affected the establishment of the Westernized system of politics and the initial stage of imperial expansion in Japan. In this context, Japanese oriental studies shared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those of Britain. However, the British political, diplomatic and academic influences on Japan do not explain how the unique features of Japanese oriental studies were formed and developed. For this purpose, aspects of how Japanese studies were separated from oriental studies through the formational process of modern university system should be scrutinized. In this period, oriental studies in Japan served as an academic tool to intensify self-identity by othering other Asian nations.

How were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which affected the formation

of Japanese views on other “orients,” reflected in the collection of the Japanese university library? Analytical study on books of oriental studies in English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reveals universal culturalism which other Western imperial institutes also pursued. However, universal culturalism affects the formative process of the library collection unevenly. Japanese intellectuals imported books on ancient civilizations when it came to the Middle East and India, as many Western scholars did. However, they showed more complicated attitudes toward China, Mongolia and Indochina that were closely related with the cause of Japanese imperial expansionism. Japanese intellectuals imported many books on practical knowledge, like language, culture and customs of those areas but also collected documents which reflected Western orientalism and used them to project Japanese superior image over other Asian countries.

Keywords | Oriental studies,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SOAS, history books in English, imperialism

